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8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7일 (음력 2월 1일) 목요일

광주·전남 일선 학교 공기청정기 구입 '골머리'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문제가 새학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예산·회계상 문제로 교육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광주는 학교회계상 조기 구입이 어려워 신학기 개학 후에야 주문이 이뤄져 '지각 구매'가 불가피하게 됐고, 전남은 필요예산 수십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4000여개 교실이 청정기 없이 수업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

광주 "학교회계 3월부터" 조기 구매 안돼

전남, 중·고 4500개 교실 예산 전액 삭감

특수학교 통틀어 9172개 학급 가운데 공기청정기나 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된 학급은 3928개로, 설치율이 42.8%에 이른다.

유치원 1275개, 특수학교 190개 교실은 100% 설치됐으나, 초·중·고등학교는 설치율이 57.8%, 3.6%, 2.8%에 그치고 있다.

교육청은 우선 지난해 초등 저학년(1~3학년) 전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28억원을 추가로 들여 고학년(4~6학년) 전체 학급교실에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당 15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학교장 재량으로 렌탈이나 직접 구입

해 1706개 교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중학교 1819개, 고등학교 1838개 교실 가운데 미설치된 1753곳과 1785곳에 대해선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일선 학교 회계시스템에 새 학기에 맞춰 3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1, 2월이 방학기간이어서 조기 구매가 이뤄지지 않자 현상에서 애를 먹고 있다.

초미세먼지 특보가 개학 직전인 지난달 28일 발령된데 연초에 조직개편까지 겹치면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이 책정돼 있는 만큼 미세먼지 장기에보 등을 반영해 개학 전 미리 구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회계 원칙상 개학 시기에 맞춰 3월부터 집행하는게 관례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예산을 좀 더 앞당겨 집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남은 예산난에 부딪혔다. 돈이 없어 구입할 길이 막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04억원을 투입,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5217개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중·고등학교 4500여개 교실에 대당 1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예산 45억원이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손 쓸 방법이 없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에 대한 사용실태와 반응, 장단점 등으로 파악한 뒤 추가 구입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인다"며 "올해 1차 추경에 서둘러 반영해 상반기 중으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보급은 학생들이 주로 머물고 활동하는 학급교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별교실은 예외여서 추가 보급 여부도 교육당국으로선 숙제거리가 되고 있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광양매화축제장 찾은 상춘객 '제21회 광양매화축제' 개막을 앞둔 6일 미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매화꽃을 뒤로하고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다. 광양매화축제는 빨라진 매화 개화 시기에 맞춰 일주일 앞당겨 8일부터 17일까지 광양매화마을 등에서 열린다.

Photo漫評

호재?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6일 '재난 수준에 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네티즌누리꾼의 표현을 받아 미세먼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문세먼지'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총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은 마음 편히 외출도 못한다.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대책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운행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악화됐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비와 같이 최악의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스1



'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숨쉬기...



중국 때문에...



우리 당은 중국 호재로 숨을 쉬게 그려

전남도, 전국 첫 발주공사 정보 공개

1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총 1만107건 2조6003억여 원

전남도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설공사 입찰 참여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 도·시군 건설공사 자료를 제공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22개 시군에서 발주 계획 중인 1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신규 및 장기공사 포함)는 총 1만

107건 2조6003억여 원 규모다. 이 가운데 도 발주 불량은 615건 4039억 원(16%)이고, 시군은 9492건 2조1969억 원이다.

사업별로 공사는 7801건 2조3044억 원이고 용역은 2806건 2958억 원이다.

신규 건설물량은 7503건 1조7849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이번 자료는 건설업체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발주 시기, 공사명, 공종, 발주 금액, 발주 부서, 전화번호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누구나 자료를 보면 한눈에 어떤 사업을 언제, 누구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유관기관에 건설공사 자료를 제공하고 전라남도 누리집에도 게재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건설정보를 수집하기 위

해 청사를 찾는 유관기관과 업체 관계자에게 선제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청렴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희원 전남도 건설도시과장은 "전남 건설공사 발주 정보 제공은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시공업체가 예측 가능한 시공 준비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시공을 하도록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사람의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